



배포 일시	2022. 7. 13.(수)		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 김남균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 신익승 (044-201-421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한-일 정부는 김포-하네다 노선의 운항 증편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'22. 7. 13. 서울경제) >

- ◆ [단독] ‘한일 인적교류 상징’ 김포~하네다, 25일부터 매일 뜬다
 - 한일은 지난달 29일 운항을 재개한 김포~하네다 노선을 이달 25일 이후 매일 운항하는 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.

- 한-일 정부는 김포-하네다 노선의 운항 증편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, 증편 시기 및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.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